

박상모 의장,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해야”



▲ 박상모 의장 건의

보령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어업인과 수산업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인접 국가는 물론 자국민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 올해부터 6월 중 실시

- 관련 조례 개정으로 연말 업무 과중 해소,
행정사무감사 집중도·효율성 높여

보령시의회가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6월 중에 실시한다.

기존 행정사무감사는 매 연말 열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해 왔으나,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이 겹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안건 심사의 집중도가 저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안건의 심층적인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시점인 연말에 진행하던 감사를 사업이 진행 중인 6월로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효율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보령시의회 신규직원 5명 채용, 사무국 인력 보강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와 임용기관
분리…충청남도 시행 공고

보령시의회가 하반기 중 신규직원 5명을 채용하고 사무국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 실시하는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일반행정직 5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 등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변경되면서 보령시와 임용기관이 분리된 결과이다.

시의회는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결원을 채우고 정책지원 업무를 강화해 조직 안정과 의정 역량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험 등 선발 절차는 202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더 빠른 소식을 받으세요~ **보령시 SNS 매체현황**

(2023. 3. 20. 기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nseboryeongsi	팔로워 46,088명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boryeongsi	방문 11,111,142명
	유튜브	https://www.youtube.com/boryeongsi	구독 8,537명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oryeongsi/	팔로워 13,028명
	카카오토리	https://story.kakao.com/ch/boryeong	구독 8,053명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IAXPxb	친구 73,716명